寶鏡湖 맑은 물이 사바를 적시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生涯如夢若浮雲(생애여몽약부운)하니
活計都無絶六親(활계도무절육친)이로다
留得一雙淸白眼(유득일쌍청백안)하야
笑看無限往來人(소간무한왕래인)이로다

생애가 꿈과 같고 뜬구름 같으니
살길을 모두 잃어 육친이 끊어졌도다.
오직 한 쌍의 청백안을 얻어서
무한히 왕래하는 사람을 웃으며 보도다.

하안거를 해제하고 산문을 나서는 수선납자여!

지난 여름 참으로 더웠으나 선방은 오히려 서늘했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었도다.

이러한 인연은 불조의 가피가 충만했고 시주의 은혜가 지중하였으며 육화로 화합하며 정진한 대중의 마음이 간절하여 이루어졌도다.

시절인연이 도래하여 보경호에 고인 물은 영축산을 가득 품고 영산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게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이 영축산의 소식을 묻거든 '영축산중에 드넓은 보경호는 그 경관 무진하여 저절로 밝게 드러난다'라고 답 할만 하리라.

삼하결재를 성만한 수행대중 모두가 보배 거울을 갖추었으니 행주좌와가 모두 법답고 어묵동정이 모두 인천의 사표가 되며 세간의 희망이 되리라.

晨朝喫粥齋時飯(신조끽죽재시반)하며
渴則呼兒茶一椀(갈즉호아다일완)이로다.
門外日沈山寂寥(문외일침산적요)하니
月明窓畔白雲散(월명창반백운산)이로다.

아침에 죽 먹고 재시에 밥 먹으며
목마르면 시자 불러 차 한잔 마시노라.
문밖에 해 지고 산은 고요하니
창가에 달은 밝고 흰 구름은 흩어지네.

수행인에겐 결제와 해제 따로 없다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



삼복(三伏) 고열에 종도들의 쉬임 없는 정진에 무한 칭송을 드립니다.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좌님들과 강원 학인, 그리고 각기 다른 처소에서 자기 형편에 맞게 원력을 세우고, 정진하는 모든 종도들에게 크게 치하 드립니다.

불교는 깨침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보는 것을 바로 보는 것[正見]이 깨달음이고, 그 깨달아 보는 자기[主人公]를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하안거(夏安居) 결제 시에 중국의 방(龐) 거사 가족이 본분 소식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시현했습니다.

방 거사는 "어렵고 어렵다"고 했고, 방 거사 부인은 "쉽고 쉽다"고 했으며, 딸 영조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고 하였습니다. 각기 터득한 심오한 경지를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내가 그 때 그 세 분의 표현이 불조께서 일러 주신 참진리에 한 치도 빈 틈이 없는 현현도리와 역역한 도리를 이르셨다고 했는데, 근자에 어떤 도인은 그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위의 세 분들에게 각기 20방(棒)을 때리겠다고 일갈하였습니다.

나는 위 세 분이 이르신 참도리나 뒤에 이르신 표현에 그저 '우습다'로 시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두이고 '시심마(是甚麼)'입니다.

하안거 결제 동안 열심히 탐구하고 두문불출하면서 공안을 놓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선(禪)은 깨달은 소식에 접하면 즉시 앞서 간 사람에게 물어 진(眞) 위(僞)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공안을 다잡아 놓치지 않고 탐구하고, 답에 이르면 또 다시 묻고 탐구하기를 끊이지 않게 계속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행인에게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이 없으니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정진의 끈을 놓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살리는 화살입니까?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석공장궁(石鞏張弓)하고.
삼평발흉(三平撥胸)이라.
중야중야(中也中也)여.
호탄대충(虎呑大蟲)이로다.

석공은 활을 당기고 삼평은 가슴을 폈네.
맞았다. 맞았다 함이여! 범이 호랑이를 삼켰도다.

석공혜장(石鞏慧藏) 선사의 회상으로 삼평의충(三平義忠) 화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석공이 활시위에 화살을 걸고서 삼평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간전(看箭)하라. 화살을 잘 살펴 보거라."

그러자 삼평은 대뜸 가슴을 열어젖히고는 '쏠 테면 쏘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석공과 삼평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법 거량을 위한 문답을 나누었습니다.

"유시살인전(猶是殺人箭)이어니와 여하시활인전(如何是活人箭)이닛고?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화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화살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석공선사는 활시위를 세 번 두드렸습니다. 이에 즉시 삼평화상이 절을 올렸습니다.

"삼십 년 동안 활 하나에 두 발의 화살을 장전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사 겨우 공부인을 만났구나."

석공 선사는 사냥꾼 출신으로 마조 스님을 만나 화살법문을 듣고서 발심하여 출가했습니다. 안목이 열린 후에는 강서성 무주(撫州) 석공산에 머물면서 종풍을 널리 선양했습니다. 사냥꾼 출신답게 과격하지만 목숨을 건 간절한 자세로 수시로 활을 들고서 화살 법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삼평 화상을 만난 이후로 필요가 없어진 활과 화살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리하여 30년 화살법문을 회향한 것입니다.

똑같은 화살인데 때로는 살인전(殺人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활인전(活人箭)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이는 화살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살리는 화살이 되기도 합니다. 사냥꾼 석공의 살인전은 마조 선사를 만나면서 활인전으로 바뀌었고 다시 석공 선사의 살인전은 삼평 화상에게 이르면서 활인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화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해제를 하고서 만행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살인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살인전을 만나더라도 이를 바로 활인전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결제를 마친 힘 있는 공부인이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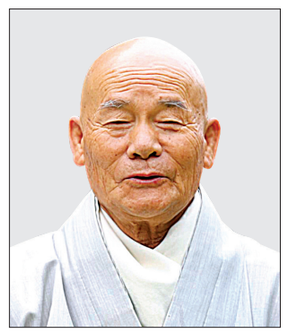
대도불입경인랑(大都不入鷩人浪)이면.
도료난심칭의어(到了難尋稱意魚)니라.

놀란 사람이 파도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마음에 드는 고기를 끝내 얻기 어려우리라.

8월 18일 하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한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목탁·죽비소리가 부처님 친설 법문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상략〉

"세계는 한 송이 꽃, 한 생각, 이~뭘까? 참선이 이 문중의 골수" 만공 스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禪에 명상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마라.

禪, 시심마, 반야 禪 한마디에 티끌먼지까지 부처님이 되어 천지가 진동합니다.

순수무잡, 한 덩어리, 두두가 부처님이요, 물물이 큰 눈 달마로다.

법대로 그때그때 맞게 백억 호법선신이 호위하네.

정혜사 능인선원 바위 위에 터진 시야. 스님은 탄식합니다. "숨길 데가 없네, 놓치면 객지다, 놓치면 죽은 목숨이다."

선지식의 향기가 산중에 꽉 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자가 누구인가?

보고 듣고 응하는 이 물건 이놈이 누구인가?

이뭘까? 이~ 하는 이 자체, 돌이키고 돌이켜라. 백 천 만 번 돌이켜라.

언제나 새 맛이다. 막 터진 새 천지다.

이 자리, 응하는 이 자리, 일념 만년

확실해져서 당당해져서 고개가 펴지고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자는 것도 먹는 것도 廢寢忘餐, 얼마나 한가한가, 얼마나 넉넉한가!

견줄 데가 없어 유아독존, 무릎을 칩니다.

가고 오고 굽혔다 폈다, 來往屈伸이 바람
숨 쉬게 하는 바람
움직이니 대행 보현보살
지수화풍 사대의 머리, 바람
육도문중에 뜨거운 가슴, 보시

보시는 심장이 뜨겁습니다.

생명의 숨길, 바람

結制, 解制가 납자한테는 하늘 땅 같은 감동의 바람입니다.

생명의 바람, 일체를 살게 하는 통풍

대중생활은 환희심이요, 통풍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보살행입니다. 화두요, 바람입니다.

목탁소리 죽비소리가 부처님 친설 법문입니다. 장군죽비 경책입니다.

예불, 발우공양, 울력

업장이 순화되는 일색의 용광로요, 활기요, 신바람입니다. 응관입니다.

풀잎도 새소리도 대종소리같이 웅장합니다.

應觀 이~뭘까? 아,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고 참아주고 만고의 넉넉한 이 주인공!

주고 또 주니 보살행입니다.

이(是)~로 회복되어 일이 없는 이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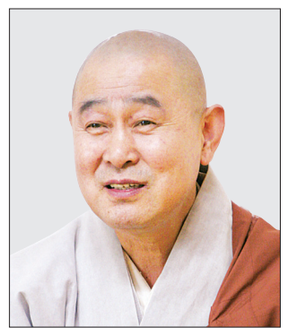
가벼워 더욱 뚜렷해지니 납자의 제자리

이 공부가 돌아가니 나날이 살맛이요, 수지맞는 재미로다.

세상만사 가지가지 많고 다양해도 보고 듣는 당체는 적적입니다. 〈하략〉

여여한 도리 안다면 일상이 '극락정토'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상략〉

부처님께서는 안거가 끝난 대중들에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진리를 전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에 길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정법을 바르게 전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來時如如 去如如하니
無來無去 亦如如니라.
欲識如如 本來道인데
日常生活 如如道니라.

와도 如如(여여)하고 가는 것도 如如(여여)하다.
옴도 없고 감도 없는 것도 如如(여여) 함이요.
如如(여여)한 본래 도를 알고자 하는가?
일상생활 그대로가 如如(여여)한 도니라.

如如(여여)하다는 것은 물에다 물을 더한 것이고 허공에다 허공을 더한 것과 같은 것이다.

다만 가고 올 뿐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이다.

如如(여여)한 도를 논하고자 한다면 가고 오고 일상생활 이대로가 다 如如(여여)할 뿐이다.

부처님 모습은 옴도 없고 감도 없는 것이다.

금강경에 형체 있는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참 부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형상으로 부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부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단지 如如(여여)한 곳에서 오신 분이다.

부처님을 형상과 모양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가고 오고 이대로일 뿐이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움직이게 마련이다. 바람이 그치면 나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생각으로 생각을 만들고 생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

어떠한 가식도 꾸임도 없는 순수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如如(여여)한 곳에서 오셔서 여여하게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여래하고 하는 것이다. 여여한 이 도리를 분명하게 안다면 일상생활이 如如(여여)한 극락정토이다.

중국선종의 초조는 달마요 이조는 혜가 스님이고 삼조는 승찬 대사이시다.

오늘은 사조 도신 대사의 어린 출가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도신 존자의 성은 사마요. 하남에서 태어나서 기주 광제현에서 살았다. 어려서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궁구하다가 도신이 승찬 대사를 찾아간 것은 13세의 사미 시절이다. 어린 사미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자신의 문제를 큰스님께 말씀을 드렸다.

"큰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인생의 고뇌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길을 열어주소서."

"누가 너를 속박하였기에 해탈하고자 하는가?"

"큰스님 아무도 저를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너를 속박하지 않았다면 무슨 해탈을 구하는가?"

큰스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열여섯 어린 사미가 그 자리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자유인이 된 것이다. 이 대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누가 나 자신을 속박하였는가?

아무도 나를 속박한 사람은 없다.

아~ 나를 속박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신이다. 자기가 자신을 속박한 것이니 스스로 자신의 속박을 풀고 나와서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하략〉